

[로스쿨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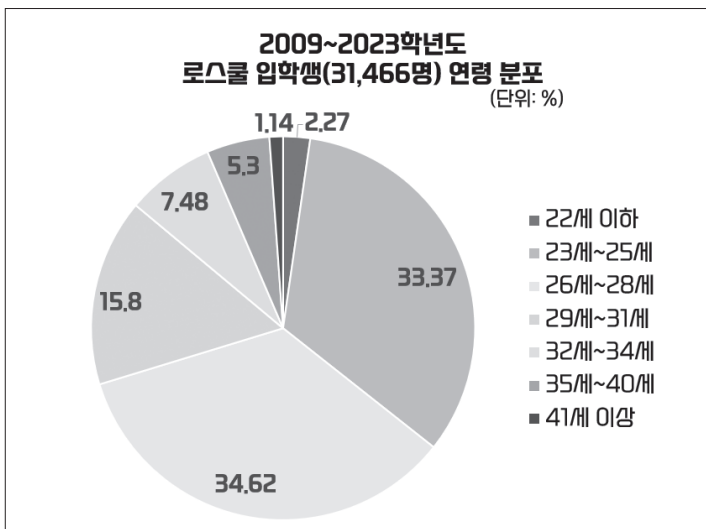
## 로스쿨 입학 연령 분석... “30살 넘어서도 로스쿨에 갈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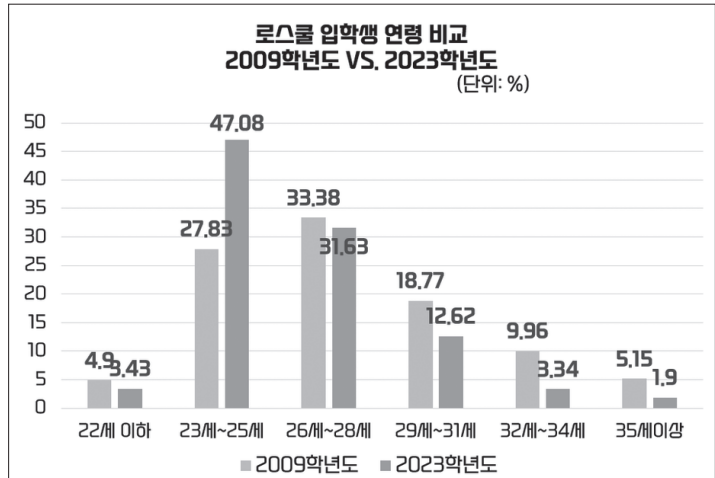
- 2009~2023학년도 로스쿨 입학생 31,466명 연령 분석
- 25세 이하 입학생 비중 증가 추세

“30살 넘어서도 로스쿨에 갈 수 있나요?”, “나이가 많은데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나요?”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앞두고 로스쿨 수험생 커뮤니티에선 입학 연령에 관한 질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제공한 로스쿨 입학

생 통계를 바탕으로 로스쿨 입학생 31,466명(2009~2023)의 연령을 분석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입학한 학생 31,466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26세~28세로, 전체의 34.62%를 차지했다. 이어 23세~25세(33.37%), 29세~31세(15.80%), 32세~34세(7.48%), 35세~40세(5.30%), 22세 이하(2.27%), 41세 이상(1.14%) 순으로 나타났다.





15번의 입시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25세 이하 입학생의 비중이다. 2009년 전체의 32.73%에 그쳤던 25세 이하 입학생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3학년도엔 50.51%를 넘겼다.

25세 이하 입학생의 비중이 늘어난 것에 비해 다른 연령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32세 이상 입학자의 경우 로스쿨 도입 초기엔 전체의 15.1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었으나, 2023학년도엔 5.24%에 그쳤다.

입학생 연령이 낮아지는 흐름은 교육부의 '정량평가 확대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입학전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량평가 비중을 60%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도입 초기 중요시되던 정성평가 요소(나이, 사회경

력, 학부전공, 봉사활동 등)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49세의 나이로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의 꿈을 이룬 조중호 변호사(KBS 자산운용부 팀장)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미리 도전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다.”며, “로스쿨 입시에서 연령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이를 극복할 다른 요소들을 더 충실히 준비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로스쿨 도입 초기보다 정량평가 비중이 늘어나긴 했지만,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됐다.”며, “로스쿨 입시에서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보다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로스쿨타임즈)